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연령별 교사 전체 모임이 1시 30분에 아브라함 장막에서 있습니다.
- 다음 주일은 세계성찬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 ‘사랑방 운동회’는 추석 연휴로 취소되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서병욱 · 임진숙 집사 가정 (감사)
조장희 · 이재신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서금선 권사 (박희만 집사 기일)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39 호

2025년 9월 28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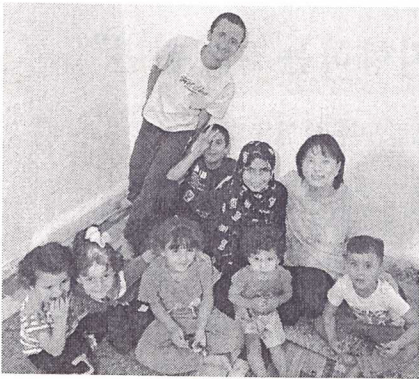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9월 기도 편지

살롬~ 무덥던 여름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조석 간에 선선함을 느끼는 이곳은 해발 1000미터가 되는 곳입니다. 걸프지역과는 또 다른 환경의 중동의 산악지역입니다. 고국에도 가을이 시작됐겠지요? 곧 추석 맞이하시겠군요. 하나님의 선물인 이 가을을 기쁘게 누리시길 소망하며 소식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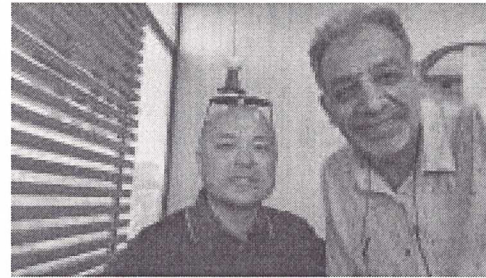
1. (비자갱신) J국에서 난민사역이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번째 체류비자가 연장 되었습니다 매년 연장할 때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신 이 한 해,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혼구원과 삶의 회복이 필요한 이 땅의 가난한 영혼들에게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주어진 한 해, 그분의 뜻을 따라 한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동역자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2. (사진1-3.공부방사역) 새 학기를 맞아 3곳에서 주말 공부방을 시작합니다. 대상은 난민가정의 초등, 중등 아동들입니다. 영어교사 출신인 아내와 테솔 자격증을 가진 제가 아이들과 공부를 통하여 복음을 접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려 합니다. 성령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어 힘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선교와 섬김

3. (아랍교회) 얼마 전 낙상해서 몇 주 예배에 못 오신 만수르 장로님을 심방했습니다. 회복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아랍교회의 든든한 어른이신 장로님을 중심으로 아랍교회가 예배와 기도, 코이노니아와 선교로 예수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4. (복음사역) 현지 동역자 A와 지방에 예배모임을 시작하려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 J지역, I지역, G지역에 복음에 관심 있는 무슬림 가정을 방문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현지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힘을 더하시며, 중동 땅에 예수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배모임이 일어나길 기도해주십시오.

5. (이스라엘방문) 3년째 가자 전쟁이 지속되는 이스라엘을 돌아보았습니다. 전쟁, 파괴, 죽음, 난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요나서의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전쟁의 당사자들이 깨닫길 소망하며 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회복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하시는 귀한 동역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살롬살롬~

중동에서 목사 드립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임 목사

한주간의 말씀

“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애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 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200, 477 / 546
 기도 :
 성경 : 신명기 31장 30-32절
 제목 : 일깨워주는 증언의 노래

- 31:30-32:6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리석은 백성
 해석: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는 노래로 꼭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분임을 알자.
- 32:7-43 어리석은 백성
 해석: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참 신, 참 하나님이 한분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적용: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풍요로운 삶을 위해 기도하기 보다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자.
- 32:44-52 모세의 마지막 당부
 해석: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당부를 한 것이다.
 적용: 자신의 감정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자.

성서일기

안녕하세요, 늘푸른 사랑방 박은지 청년입니다. 모두 평안한 가을 날 보내고 계신가요? 2023년, 유학 생활을 시작하며 사랑방교회에 막 다니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주보글을 썼었는데, 벌써 3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흘렀네요. 언제나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결코 완벽히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시간이기에, 눈 깜짝할 사이 과거가 되어 버리는 현재가 새삼 더욱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2학년을 마치고 1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어 B2 자격증 취득, 충분한 휴식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탐색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휴학을 시작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목표였던 프랑스어 시험은 많은 분의 응원 덕분에 감사하게도 며칠 전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 학점 관리 등등 설 새 없이 달려온 터라 갑자기 찾아온 휴식 시간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래도 일과 휴식 사이의 경계를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올해 한국 리더십학교라는 크리스천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하나님께 헌신하며 한층 더 가까이 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2학년을 막 마쳤을 때 저는 미래와 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이 많이 번잡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가하며 신앙을 키우고, 여러 값진 경험을 통해 잊고 있던 저 자신을 발견해 나가면서 결국 그 불안감은 제 삶의 주인이 나라는 안일한 생각 속에서 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이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긴 지금, 제 마음은 불안함 대신 평화로 가득합니다. 걱정하고 낙심하며 지금을 흘려보내기에는 삶은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값진 하나님의 선물 아닌가요. 이제는 두려워 주저하기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나아가보려 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높은 하늘 아래 코끝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곧 알록달록하게 물들어갈 가을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글을 읽는 짧은 시간 동안 조금은 더 다채로워질 사랑방 지체들의 현재를 기대하면서, 모두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늘푸른사랑방 박은지 청년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99 : 5, 9
39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이사야서 57 : 15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270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누가복음 16 : 13-31
570
“ 무관심의 구렁텅이 ” 정재훈 목사

설교자
비움사랑방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341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10(3)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윤호중 하경임 / 봉헌위원 : 최창수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품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리를 놓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무관심의 구렁텅이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높은 평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매우 달랐습니다. 위선적이고 영적으로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화려한 삶을 살던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당합니다. 그 집 대문에서 고통스럽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생전에 부자는 나사로를 모른척 하였습니다. 음부에서 부자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깊은 구렁텅이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완전한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무관심의 깊은 구렁텅이를 건널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교만한 나를 버리고 갈라진 틈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문 앞에 쓰러진 나사로에게 다가갑시다. 구렁텅이를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다리를 놓는 자들로 살아갑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이어람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꾸러기들은 학교에 오면 정신이 없습니다. 아침에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자기 물건을 후다닥 정리한 다음에 바로 철봉에 갑니다. 놀고 싶은 마음은 몸을 빠르게 움직이게 합니다. 매일 그렇게 놀면서 매일 아침이면 또 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꾸러기들이 참 보기 예쁩니다.

9월 체육은 공을 활용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을 혼자서도 다뤄보고, 짝과 같이 주고받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을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것도 재밌고, 혼자서 던졌다 받는 것도 재밌고, 공으로 하는 활동은 꾸러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입니다.

우리나라의 왕과 가족이 살았던 집인 창덕궁에 다녀왔습니다. 창덕궁에는 왕들이 산책하던 후원이 있는데 이번에는 후원을 중심으로 돌아봤습니다. 후원에는 연못, 정자, 나무, 물, 햇빛 등 자연 안에서 모든 게 조화롭게 펼쳐져있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여기서 쉬면 아주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는 길에 후원에서 기억 남는 것을 나눠보니 물이 많고, 연못에 물고기가 좋았다는 얘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9월 20일 토요일, 강원 동부 지역에는 온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일기 예보에는 시간당 1mm 미만의 강우량이라고 했는데 빗발은 계속 굵어지고 바람도 꽤 불었어요. 그 날이 어린이학교 도보여행 2차 답사가 있었던 날이어서 이런 날씨가 야속했는데요. 굵은 날씨였지만 다행히 마음에 드는 숙소 두 곳을 확정짓고, 1차 답사 때 미비했던 점

들도 돌아보며 보완했습니다.

비옷을 입고 어느 오르막길과 해안길, 농작로와 아스팔트를 휘적휘적 걸어보고 언제나처럼 도보여행 중간에 쉬어갈 어르신들 쉼터 방문 허가도 받고 그랬습니다. 화장실 점검도 당연히 하구요. 10월 마지막 주에 있을 도보여행의 코스가 두 번의 답사 끝에 확정되었으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린이들은 툼툼이 뛰고 걷고 하면서 체력을 키울 것 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3시에는 학부모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간식 준비를 맡은 어린이 학부모님들께서 샌드위치, 과일꼬지 등의 간식을 근사하게 차려 주셔서 교육 받는 시간이 더~ 풍성했습니다. 수고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한 달에 한 권씩 학년 담임 교사와 고학년 어린이가 함께 고전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4학년은 <어린 왕자>, 5학년은 <키다리 아저씨>, 6학년은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10월에도, 11월에도 학년 공통 고전 읽기는 이어질 거예요.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공동심화학습 <이단 바로 알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단에 몸 담았던 강사님의 생생한 경험담에 빠져들면서, 멋쟁이들의 입에선 탄성이 멈추지 않았습니. 사회적으로 폐해가 많은 만큼, 그 위험을 멋쟁이들이 잘 경계하고 물리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천이 계속되어 이번 주는 열린수업 시간에 노작을 했습니다. 구역별로 흩어져서 페인트를 칠하고, 바닥을 메꾸고, 잡초를 뽑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이후엔 컵라면과 마시멜로 등 맛있는 간식을 먹는 해피타임도 뒤를 이었습니다.

5학년이 유럽에서 곧 돌아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길 함께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삶을 보여주는 대화

‘똑 똑 똑’ “네?” (철컹 문 여는 소리)

“어, 무슨 일이야?” “선생님... 저도 얘기하고 싶어요.”

5학년 멧쟁이들이 장성아 선생님과 함께 유럽으로 해외문화탐방을 떠난 후 저의 3방 한달 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낯설었던 첫 2주가 지난 후 이제는 종종 멧쟁이들이 찾아와 3방 문을 두드립니다. 면담이라는 다소 거창한 말로 포장된 ‘대화’가 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랍니다. 어떤 멧쟁이는 자신의 상황을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해서 찾아오고, 다른 멧쟁이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도대체 어찌할 바를 몰라 조언을 구하러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멧쟁이들과의 진솔한 대화들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한두 시간을 훌쩍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대화]의 사전적 의미는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뜻합니다. 이를 영어로는 conversation 이라고 하며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conversatio에서 유래되었습니다. “con-“은 ‘함께’를 의미하고 “versare”는 ‘돌리다, 둘러싸다’의 뜻으로 이 두 가지 의미가 합쳐져 “함께 돌다” 혹은 “함께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conversatio는 한 때 수도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단어 또한 conversari 즉 “함께 살다, 동행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화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각자의 삶의 방식을 서로에게 드러내 보이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현재 3방살이 체험중인 저에게 대화는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며 삶과 생각을 보여주기도 하고 상대방의 삶을 엿보는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대화를 통해 삶을 솔직히 보여준다는 것은 저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약점을 드러내면 상대방이 나를 선불리 판단하진 않을까 불쑥 두려움이 앞서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용감한 멧쟁이들은 저에게 스스로없이 자신을 보여주곤 합니다. 스승보다 나은 제자들이 여기에 있는가 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조민아 교사

함께사는 이야기

<주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재훈 목사

찬 송 : 478장, 488장

성 경 : 마태복음 7장 1 - 12절

말 씬 :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르완다를 위한 기도>

94년 내전에서 백만명이 죽었습니다.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들이 치유와 용서의 정치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불안정한 아프리카 대륙에 좋은 모델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110회 총회를 위한 기도>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로 영락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총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 1) 여행 중에 있는 멧쟁이 학교 5학년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안전하고 좋은 여행을 위해서
- 2) 공동체 안에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 생활공동체 소식 >

일교차가 크게 나면서 무림리는 아침에 짙은 안개가 낀 날이 있었습니다. 데크에 낙엽이 쌓이고, 산책하며 밤을 주워볼 수 있는 걸 보니 가을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고구마를 캐내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릴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가을은 뭐든 넉넉하고 풍성한 계절입니다. 우리 마음도 사랑으로 가득해서 넉넉해지면 좋겠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